

Kali

사회대, 상대, 생과대, 공대

반주희

2002. 2. 5.

수신: 실무주체 연석회의에 오신 여러분

019-547-2189.

발신: 제14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제 3차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석회의(가)

1. 보고 안전/ 안전 상정

1-1 총여학생회 보고-확대일꾼 수련회 보고

1-2 내규 기획단/단대 보고-교양 진행 상황, 소책자와 자료집 진행 상황

* 공대교양 (1월) - 진행했음

{ 사회대 - 3시 ~ 3시30정도

생과대 - 5시30분

상대 - 11시 탄원서 : 1시간안쪽으로. 수요일

2. 논의 안전

2-1 연석회의의 위상 재논의/ 실무주체와 기획단의 역할 논의

2-2 선배 교양 자료 논의

2-3 단대 교양 일정 확정 ~~소책자개요~~

2-4 단대교양 일정 확인

3. 다음 모임 날짜 확정

2/9 사회대 1~5시 백양관 강당 07

* 첨부자료1-2001년 새터 내규 교양 지침 중 프로그램 예시

첨부자료2-공대 과반 교양 발제문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석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먼저 연석회의 첫모임에서 논의되어 합의가 되어야했던 연석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3차 모임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연석회의의 상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합니다.

총여학생회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실무주체가 각 단위의 새터 내규 시행에 있어 그야말로 '실무주체'가 되어 총여학생회/내규 기획단과 소통하고, 연석회의는 그것을 총화하고 교양을 위한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석회의는 일정 공유와 상황 보고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한다고 보며, 단대와 총여의 중간 다리 정도 이상의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주체 연석회의가 좀 더 높은 수위의 위상에 합의하고, 실무주체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규 시행 과정에 참여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 실무주체가 각 단위 교양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총여학생회나 내규 기획단은 질문/응답을 받는 정도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단위 사정을 잘 아는 실무주체가 교양을 기획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단위에서도 그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주체의 이야기가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양 자료는 총여학생회, 내규 기획단, 연석회의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며 경우에 따라 총여학생회나 기획단에서 교양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2. 새터 내규 교양을 위한 콘텐츠 생산을 연석회의에서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규 기획단과 총여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교양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나온 자료가 각 단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연석회의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료를 보고 합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같이 만들고 아이템을 구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새터 내규 시행 과정은 새터가 끝난 후까지 이어집니다. 새터 내규 시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내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위의 실무주체들이 내규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새터 내규에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 단위 실무주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단위의 실무주체분들이 우리 단위의 내규는 내가 책임지고 만들겠다는 결의로 총여학생회/내규 기획단과 2002년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컷루시

1. 별이불은새터내규

2. 신씨에게 내규질문 → A.B.C 어느정위?

3. 새터내규에 대한 설명

4.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 새터가 어떻게 / 신씨는 어떻게

5. 신씨(여자신씨)의 수기

6. Oshano → 새터가(이)의 근?

평면에 대한
*내규에 대해 갖는 글과 내규관련

과반 학생회 선배 교양을 위한 자료 만들기

확대 간부 수련회를 통해 토론회가 한 차례 있었고 그 자리에서 2002년 내규 시행의 기초와 성폭력의 개념, 세칙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반 학생회장들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토론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단대별로 과반에서 다시 교양이 한 두차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운위 자리에서 확간수에서 쓰였던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규 시행의 의의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겠지만, 모임을 한 두차례 더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예시나 팁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과반학생회장이라고는 하지만 내규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념 정리만 해주는 것은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서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규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을 끌어내는 것이 물론 선행 되어야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제시해주는 것이 실제로 내규가 전달되고 올바르게 시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내규에 대한 이해나 고민, 공감대가 높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여학생회와 기획단, 실무주체과 같이 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단대마다의 상황이나 수위는 실무주체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새터 내규 전달 부분

-각 과반에서 교양도 공유의 시간을 가지지만, 고학번 선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분위기를 흐려놓고 가는 것을 어떻게 저지하고 그 분위기를 다시 만들 것인지 무척 난감하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명한다지만, 애초에 교양도 하지 않는 고학번 선배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배님들 이번 새터 이렇게 해요~~ 라는 식의 문구 몇 가지를 내규 포스터와 같이 붙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여학우들이 내규에 동의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때 무척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대 한 반에서, 확간수 때 이야기한 FM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글에 대해 여학우들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 새내기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주어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확간수 자료 참고하여 논의합니다.

2. 게임이나 촌극 부분

-새터에 가기 전에 게임이나 촌극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촌극은 내규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만큼, 주제나 표현 방법에 대해 긴장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놀이 아이템 제공하기에 있어서는, 확간수 자리에서 같은 게임이라도 놀이 방식이 단대마다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대 사정에 맞게 주의할 놀이들을 이야기 하구요, 대안적 아이템은 다음 기획단 회의 이 후 다음 모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외의 프로그램은 첨부자료1를 가지고 논의

* 첨부자료1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 이렇게 하자!

"반성폭력 자치규약만들기"

1. 최소한 OT기간과 수련회 초반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OT와 수련회 첫날 단대 학우들이 다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주로 말해야 할 것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있다는 것,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신고통로 등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새터 기간을 보내자는 당부의 말 정도를 해 주는 것도 좋다.

2. 각자의 성폭력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리에서 교양프로그램의 도입부에 하면 좋은 아이тем이다. 우선 종이를 나눠주고 '성폭력 하면 떠오르는 것' 혹은 '무엇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섞은 후 하나씩 뽑도록 하고 뽑은 것을 읽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읽은 것을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들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직·간접적인 성폭력의 경험나누기와 그 대처방안 이야기해보기

- 자신이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이나 성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목격한 것이나 매체 등에서 접한 것), 주위 사람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본다. 이 때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공동체의 성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의 경험을 나눈 뒤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다.

4.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재구성해보기

-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교양이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내기들보다는 선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정에 맞게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법조문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다면 이 때 만들게 되는 자치규약은 '이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와 같은 형식의 10개 이내의 항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본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 Anti - Machoman

anti - F.M. → 다른방식으로 FM 하기

* 퀘즈, 단체클립기,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손풍기

이구동성, 벵과벵사이, 이니셜게임, 스피드게임

풍선터뜨리기, 2인3각응용, 크로스워드 puzzle

*공대 - 새터. 관문(X2). 총회지킴이들 모집중.

상대 - 기획단필요한 상황. 1개 방.

사회대 - 신고항아. 공동회장식

*첨부자료2-공대 과반학생회 교양 발제문

1. 우리가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이야기하는 이유

성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말과 딱딱한 조항으로 된 내규들에 으레 거부감을 느끼실 지도, 혹은 그런 것과 우리 과반은 거리가 있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동의하지 않은 성적 성격을 띤 행위 및 요구와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로 확장해 사고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던 성폭력적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OT, 새터 기간은 분위기가 들떠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매우 긴 점등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새내기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에 불만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점, 그러한 상황들을 대학문화 그 자체로 받아들여 이후 같은 상황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2.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적인 상황'에서 소외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치적 규범입니다. 아카라카 색시버전은 누구에게나 재미있는 것도, 누구에게나 불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며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학우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더욱 '신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내규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 우리 과반, 나아가 공대, 연세 공동체의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올해 새터는 이렇게 만듭시다

1) OT, 새터 과반 규율 안에서 반성폭력 내규 녹여내기

선배들이 지켜야 할 내부적인 규율들을 정할 때 반성폭력 내규의 내용도 함께 녹여내는 것은 가장 쉽게 내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지요. 그 동안의 과반 분위기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과반의 OT교사들. 이것만 고치면 잘하겠지 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함께 이야기해 봐요.

2) OT 때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소개 시간 가지기

혹시나 내규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는 새내기들을 위해, 공동체의 규약으로서 내규를 소개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과반 학생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3) 게임, 촌극 등 새터 안 과반 프로그램에 대해 미리 논의하기

특히 과반 여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물었으면 좋겠네요. '첫날밤에' 같은 게임은 되도록 금지종목으로 묶어버리고...-_-; 지도하는 선배들만 잘 해나간다면 새내기들이 오바하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요.